

〈부안 주민투표〉 반대 91.8%

원전센터 유치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부안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91.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위원장 박원순)는 지난 2월 15일 새벽 개표를 마친 뒤 "전체 투표권자 5만2천108명 가운데 3만7천540명이 투표해 72.0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 중 찬성이 5.71%(2천146명), 반대가 91.83%(3만4천472명)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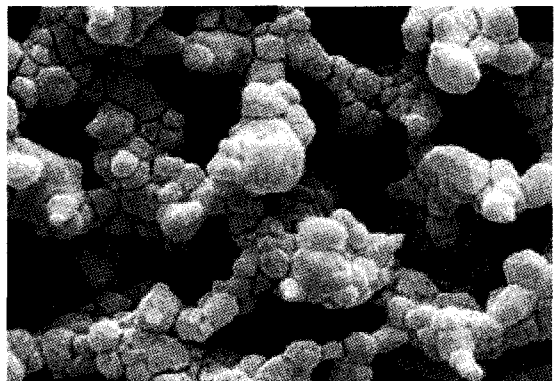
이날 투표는 위도면을 제외한 부안지역 12개 읍면 36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으며 투표율은 변산면 제2투표소가 86.78%로 가장 높았고 부재자 투표가 51.14%로 가장 낮았다.

관리위 박원순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위도면의 투표가 무산된 것은 유감이지만 부안 주민투표는 가장 평온하고 높은 투표 참여 하에 이뤄졌다"면서 "이는 부안 주민의 성숙한 주민의식과 평화에 대한 열정이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주민의 동의없이 정책이나 사업 추진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지적한 뒤 주민들에게는 "대다수 주민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분명해진 이상 생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향후 정부에 주민투표로 밝혀진 주민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구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연합뉴스]

더 무서운 '초미세먼지'



▲100만분의 1m(1 μ m)보다 더 작은 미세입자들이 뭉쳐 있는 모습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했다. - 한국기계연구원 제공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바이러스 크기인 '초미세먼지'가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핵심물질로 주목되고 있다.

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들은 지름 0.1 μ m 이하로 '나노입자'라고도 불린다. 크기가 작은 만큼 미세먼지 농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숫자가 천문학적으로 많다. 지름 0.03 μ m인 초미세입자 100만개를 합해야 지름 3 μ m 입자 하나와 무게가 같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천식 등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데는 입자의 무게가 아니라 그 숫자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세먼지 규제는 초미세먼지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할 우려가 크다.

건물 안의 깨끗한 공기 속에는 이러한 초미세먼지가 공기 1cc당 5천개, 도로변에는 10만개가 가량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토목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는 공기 1cc당 여름철 1만~5만개, 겨울철 1만~30만개에 이른다.

초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은 경유차로, 배기가스 1cc에 1천만~1억개의 초미세먼지가 들어 있다. 하지만 휘발유차도 일부 직접분사식은 경유차 못지 않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 따라서 경유차에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부착이 의무화된 다음에는 휘발유차가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은 "초미세먼지의 인체 위험성이 큰 만큼 유럽에서는 조만간 규제가 시작될 전망이다"어서 일본에서는 연구가 활발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연구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한겨레]

맥주 페트병 재활용 '골치'

재생설비 없어 압축시킨채 쌓아놓아 색깔 다르고 나일론 섞여 처리 애로생산업체 재활용의무량 규정도 없어 대용량 맥주가 지난해 연말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갈색 페트병의 재활용 대책이 없어 새로운 환



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페트병 전문재생업체인 신해산업은 지난해 연말부터 수거되기 시작한 1.6ℓ 대용량 맥주 페트병이 현재까지 100여t에 이르고 있는

나 재생설비가 없어 압축만 시킨 채 본사와 오산공장

의 마당에 쌓아놓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 2월 11일 "기존의 재생설비는 페트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흰색(투명)과 녹색(그린) 두가지 종류만 가능해 갈색인 대용량 맥주병을 함께 처리할 수 없을 뿐더러 나일론까지 섞여 있어 재생처리를 한다 해도 상품가치가 낮아 수요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한국페트병재활용협회도 이날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는 2년 전 출고량을 기준으로 재활용 의무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갈색 페트병은 아직 맥주생산업체의 의무량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전국 40여개 페트병 재생업체가 모두 마찬가지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갈색 페트병 처리문제가 발생하자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와 맥주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갈색병 선별작업과 신규 처리라인 설비, 수요 개발 등 재생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 자율협약 등을 통해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생태보전·복원 우수지역 13곳 선정

광주 석저마을 등 13개 마을과 생태공원이 생태계 보전·복원 우수지역으로 뽑혔다.

환경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복원한 사례를 공모해 광주 석저마을, 제주 서귀포 솨반천생태공원 등 13곳을 성공사례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월 15일 밝혔다.

이중 광주 북귀 덕의동 석저마을은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자연보호 활동을 벌이고 유기퇴비를 이용한 무농약 농업을 전개해 성공사례로 선정됐다.

또 솨반천생태 공원은 인근 농경지 오염, 쓰레기 투

기로 인해 하천수질이 2급수 이하로 떨어졌으나 최근 3년간 하천변 습지 조성 등의 개선노력을 기울여 1급 수질을 회복했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을 향후 예산편성시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기초시설 구축비용우선 지원대상에 올릴 계획이다.[연합뉴스]

소음대책특별법 제정 가속화

수원 비행장의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방지와 여주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피해보상 등과 관련, 정부의 '소음대책특별법' 제정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수원 권선)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방위에서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청원'과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피해보상 청원' 등 3건의 청원을 심의한 결과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소음대책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 심의한 청원은 김용서 수원시장이 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0년 11월 21일 신현태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방지 청원'과 임대운 대구 동구청장의 3인이 같은 해 11월 29일 제출한 '군용항공기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김기수 씨외 293인이 이규택(李揆澤·여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피해보상 청원' 등 3건이다.

국방부는 이들 청원에 대해 "소음 실태조사와 9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음대책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수용불가하나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특별법을 제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음대책특별법'은 올해까지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소음실태조사와 소음영향별 피해지역·보상기준 설정을 마치 뒤 내년까지 공청회·관련부처 협의·재원 마련 후 오는 2005~2006년 제정 시행될 계획이다.[중부일보]

공장 산폐 방치로 식수오염우려



문경시 산양면 진정리 농공단지내 위치한 한국자원재생공장에는 몇 년째 산업폐기물 수천톤이 노상방치되고 있고, 비가 올 때는 침출수가 가까운 영강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어 문제다.

영강은 식수보호지역으로 시에서 특별히 수질을 감시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장 직원은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처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언제 처리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문경시청에서 조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소중한 식수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환경방송 2.12]

환경센터 유치경쟁 치열

순천시 주민인식 크게 달라져

환경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새롭게 바뀌어 순

천시가 지난해 12월부터 환경센터 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 접수 결과 5개 면동 8개마을에서 후보지를 신청,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순천시 환경센터는 지난 2002년 서면 건천지역이 입지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반대외사를 표명하고 있어 그동안 선진시설건학과 지역개발의 촉진효과 등을 홍보해 가자 주암면 4개마을이 유치를 희망했고 이번 4개마을이 추가로 신청함에 따라 후보지가 총 8개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8개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 경제적여건과 환경영향 및 운영여건 등을 우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후보지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호응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입지를 결정하게 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최종 입지로 결정된 1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는 유치신청에 대한 주민의 진정한 뜻에 부응하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일보]

밀렵 환경보호단체회원 구속

민간 환경보호단체 회원이 불법 총기로 밀렵을 하다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한명관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1일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공기총으로 야생조류를 밀렵한 혐의(조수수렵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보호단체인 조수보호연합회 회원인 김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께 수렵장 허가가 나지 않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 낚시터 부근에서 꿩 1마리를 실탄이 장전된 불법 공기총으로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환경보호단체 회원임에도 꿩을 잡을 목적으로 정확하게 조준해 밀렵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검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임에 가는데 시간이 남아 사냥을 했다"고 진술했다.[한겨레]

재활용 헛갈려 분리수거 실패

일반 쓰레기와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품 품목이 너무 많아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돼 따로 배출해야 하는 쓰레기에 과자·라면·비누·햄·치즈봉지 등 각종 필립류 포장재와 폐형광등 등 2개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와는 별도로 내놓아야 하는 재활용품은 16개 품목에 달한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오디오와 이동통신전화 단말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재활용 품목이 수십 종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식이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달라 일부 군에서는 폐식용유와 농촌폐비닐을 별도로 수거하기도 해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활용품은 규정상 개별 품목을 1회용 비닐봉투에 별도로 담든지 끈으로 묶어 배출해야 하지만 품목별 쓰레기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섞어버리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품목별 분류를 포기하고 함께 담아 버리고 있어 일선 자치단체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 수거 후 선별작업 과정을 거쳐 처리업체에 보내는 한편 비재활용품은 톤당 수십만원의 처리비용을 들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일보]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로 인해 송어 80% 기형

수도권 매립지 10년 비극은 시작됐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해역의 빨을 먹여 키운 송어는 충남 태안 해역의 빨 송어보다 간에 축적된 중금속 농도가 최고 2배나 높아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실험결과 밝혀졌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해역에서 직접 잡은 송어의 간에서도 중금속 축적 농도가 태안 것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가 지난해 2월부터 120일 동안 실험 결과 토대로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해역 퇴적물에 사육된 송어 체내의 중금속 축적평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인근 뺨에서 키운 송어의 간에 축적된 카드뮴 농도는 쥐에서도 병리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수치로 척추변형 등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 같은 원인은 수도권매립지 인근 해역의 뺨이 태안의 뺨보다 중금속 오염 농도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측은 수도권매립지 인근 해역에서 잡힌 송어의 70~80%가 최추만곡종이나 지느러미 이상을 보이는 것도 매립지 인근해역의 뺨이 중금속으로 오염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체내, 특히 간에 중금속이 많이 축적된 매립지 인근의 송어는 태안의 것 보다 성장속도가 느렸다"며 "이는 중금속의 해독과 배출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토막상식 우리가 고민하는 걱정거리 중에는 절대 없을 일이 40%이며, 이미 끝난 일이 30%이고 사소한 일이 22%이며 바꿀 수 없는 일이 4%이므로, 나머지 4%만이 대처할 수 있는 일이다. 즉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다.